

경험적 연구로서의 번역사례연구: 방법론적 고찰

강 지 혜
(아주대)

1. 서론

조사 대상의 성질을 맥락 속에서 세밀하게 파악하는 사례연구 방법은 번역 학자들에게 익숙하다. 번역 연구가 주로 특정한 번역텍스트, 번역자, 번역 상황 등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오늘날 번역 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구방법이 사례연구라는 수잠-사라예바의 주장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Susam-Sarajeva 2010). 윌리엄즈와 체스터만도 방법론의 관점에서 번역 연구를 ‘개념적 연구(conceptual research)’와 ‘경험적 연구(empirical research)’로 구분한 뒤 경험적 연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례연구를 다룰 만큼 사례연구를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제시한다(Williams and Chesterman 2002).

그러나 사례연구는 문제점이 많은 연구방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방법론자들은 사례연구가 연구 결과의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 부족, 제한된 설명력과 예측 능력, 구조화된 방법의 부재, 연구 과정에서의 엄밀성 보장을 위한 장치 부족,

연구자의 역량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Gerring 2004, 2007; Flyvbjerg 2006; Van Wynsberghe and Khan 2007; Achen and Snidal 1989; King, Keohane, and Verba 1994; Lieberman 1994; 이영철 2006, 2009). 뿐만 아니라 사례연구가 특정 이론을 확증하거나 반증하기 위한 것인지, 탐색적인 가치만을 지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상충되는 의견들을 제시한다.

사례연구 방법은 사회과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번역학계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번역학에서 널리 이용되는 연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윌리엄즈와 체스터만, 수잠-사라예바를 제외하고는 사례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룬 글이 없으며, 이는 방법론적 논의가 전반적으로 빈약한 번역학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¹⁾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사례연구의 역할과 쟁점을 방법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례연구 방법에 관한 체계적, 비판적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윌리엄즈와 체스터만의 분류 방식에 따라 사례연구를 ‘경험적 연구’의 한 유형으로 본다면, 사례연구 논의의 출발점은 ‘경험적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험적’이라는 용어는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지만 번역학에서의 위치는 더욱 특별하다. 번역학이라는 학문을 정초한 제임스 홈즈를 비롯하여 기디온 투리, 앤드류 체스터만, 앤소니 펴의 논의에서 ‘경험적 연구’는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며, 특히 인식론적 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경험적’이라는 개념이 번역학자들에 의해 동질적, 정태적 범주로 다뤄지지 않으며, 사례연구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번역현상의 기제와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분과학문로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번역학은 그동안 언어학, 문학, 역사학, 사회학, 철학 등 인접학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문의 정체성과 위치에 관한 체계적인 성찰이 필요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 번역학에서 사례연구 방법을 다룬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글(Williams and Chesterman 2002, Susam-Sarajeva 2010) 이외에 Neubert(2004)와 Susam-Sarajeva(2001)가 있다. 그러나 Neubert(2004)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례연구 방법에 관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우며, Susam-Sarajeva(2001)도 Susam-Sarajeva(2010)를 위한 예비적인 성격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번역학에 관한 인식론적 성찰(인식 가능성의 조건, 방법론, 과학성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반성)과 사회학적 성찰(학문제도의 특성과 위치에 관한 반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윤성우·이향(2011), 이향(2011), 이영훈(2013), 강지혜(2012a, 2012b) 등에서 시작된 번역과 번역학에 관한 자기반성적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 글은 번역 연구의 문제들을 인식론적, 방법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번역학적 지식 획득의 방법에 관한 논의에서 ‘경험적’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사례 연구 방법의 의미, 역할, 지위를 고찰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사례연구는 자연주의적, 질적 방법을 토대로 하는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Yin 2009; Stake 1994)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질적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연구를 주목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이는, 이 논문에서 논의할 사례연구의 철학적 근거나 논리가 질적 연구와 맥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끝으로 번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 사례연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때 번역의 다면적이고 복잡한 성질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2. 번역학에서 ‘경험적 연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험적 연구’에 관한 번역학자들의 논의는 197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한 응용언어학 국제학술대회 번역분과에서 시작된다. 그 자리에서 제임스 흠즈는 번역의 제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translation studies”로 지칭할 것을 제안하면서 새 학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번역학은 경험적(empirical) 분과학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흔히들 지적 하듯이 이 같은 경험적 분과학문에는 2개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칼 험펠은 “우리 경험세계에서 일어나는 특정한(particular) 현상을 기술하는

(describe) 것 그리고 이를 설명하고(explain) 예측할(predict) 수 있도록 일반적(general) 원리들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순수 연구 분야로서의 번역학은, 즉 번역학 밖에서 실용적으로 직접 응용되는 것 이외에 연구 그 자체를 위한 번역학은 결국 두 개의 목적을 가진다. 이는 (1) 우리 경험 세계에서 드러나는 번역현상과 번역결과물을 기술하고, (2) 이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원리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Holmes 1972/1988: 71)

번역학이 경험과학이라는 홈즈의 선언은 번역학사(史)에서 번역학의 존재론과 인식론에 관한 중요한 진술로 간주된다. 홈즈는 실증주의자(positivist) 칼 험펠의 논의를 토대로 번역학의 성격을 기술함으로써 존재의 영역을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현상계에 한정하고, 과학적 설명이란 어떤 현상을 법칙 아래 포섭하는 형식이라는 입장을 수용한다. 즉 번역현상도 본질적으로 자연현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을 토대로 주체와 대상 간, 그리고 사실과 평가 간 엄격한 구분이 가능하며 대상을 온전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홈즈의 논의는 오늘날 번역학 연구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현실과 괴리가 크다. 연구 패러다임을 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비판이론, 구성주의(cf. Guba and Lincoln 1994)로 구분해서 볼 때 오늘날 번역학 연구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토대로 혼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²⁾ 결과적으로 “홈즈의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을 정도로 다원적이고 폭발적”(Hermans 2001: 1)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여기서 ‘연구 패러다임’은 연구를 이끄는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뜻하며, 연구에서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전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Guba and Lincoln 1994). 철학적 관점에서 연구의 문제를 고려한다는 것은, 연구대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존재론,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지식 획득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다루는 인식론 그리고 연구과정은 무엇인가(지식 획득의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방법론적 측면 등과 관련된다.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이런 철학적 가정으로부터 연구 설계를 시작하는데(cf. Cresswell 2007: 33), ‘연구 패러다임’은 이러한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적 가정을 비롯하여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기제와 인과관계가 작용하는지, 규칙성은 발견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성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신념체계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번역학자들이 험펠의 관점을 실제로 수용한 방식은 흥미롭다. 우선 기디온 투리는 실증주의자 험펠을 토대로 번역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학문을 구획한 흘즈의 입장을 지지한다(Toury 1995). 투리는 험펠의 글을 다음과 같이 흘즈보다 길게 인용한다.

경험과학에는 2개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경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현상을 기술하는 것 그리고 이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반 원리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과학적 분과학문의 설명적, 예측적 원리들은 가설적 일반화와 이론들에 의해 진술된다. 이들은 개별 현상이 따르는 일반 패턴과 규칙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반 패턴과 규칙도 알려준다. (Hempel 1952: 1; Toury 1995: 9에서 재인용)

그는 번역학이 험펠의 경험주의 존재론과 실증주의 인식론의 토대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보았고, “완전함과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진 경험적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번역학에 “제대로 된 기술(記述) 분야(a proper descriptive branch)”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Toury 1995: 1). “분과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의 연구주제는, 이미 형성된 가설과 이론 모델을 토대로 하는 사변적 주장들이 아니라 현실에서 존재하는 (관찰과 재구성이 가능한) 사실들”(1995: 1)이라는 것이다. 투리와 개인적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소위 기술주의자(Descriptivists)로 함께 분류되는 허먼즈는, 투리의 입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번역을 이해하는 전통적 방식에 대한 투리의 방법적 회의주의는 철학적 근거보다 실제적 근거에서 비롯되었다. 투리가 원했던 것은 번역과 번역 결과물을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로 연구할 수 있는 틀이었다. 이를 위해 관찰이 불가능한 정신적 과정에 관한 사변적 논의는 번역학에서 제외시켰고, 번역이 어떤 것인지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보여주지 않고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건조하게 주장만 하는, 기존의 규범주의적, 원천텍스트 중심적 접근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따라서 그의 모든 핵심 개념들은 논쟁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기술적’은 ‘규범주의적’에, ‘경험적’은 ‘사변적’에, ‘번역텍스트/번역문화권 지향적’은 ‘원천텍스트/원천문화권 지향적’에 대립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투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번역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번역은 추상적 언어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따라서 텍스트 관계가 초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결과물로서의 개별 번역텍스트는 명확한 번역 문제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것 같다. (Hermans 1995: 216-217)

투리에게 ‘경험적 방법’은 ‘사변적 방법’과 대립되는 것이며, 특히 사변적 방법은 번역학이 “제대로 된 과학이 되기 위해”(Neunzig 2011: 15)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실증주의가 적어도 과학철학 논의에 있어 1970년대 이후 급격히 몰락했고,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특히 많은 비판에 직면했지만(cf. Giddens 1975, Gouldner 1970), 번역학에서는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초반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한 데는 투리와 같은 번역학자들의 역할이 컸다.³⁾ 번역학을 어떻게 기존의 ‘과학주의’의 틀에 맞출 수 있는지를 고민한 초기 번역학자들은, 번역학을 ‘과학적’ 분과학문으로 만들기 위해 방법론적 실증주의의 이론, 법칙, 설명, 예측, 과학적 진보에 관한 관점을 수용했던 것이다.⁴⁾ 허먼스는 투리가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옹호하는 면모를 보인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Hermans 1999), 실증주의적 방법이 제공하는 방법적 엄밀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투리의 확고한 경험주의는 결국 학문을 재정립·재구성하고 새로운 탐구 목표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방법론적 도구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기타지역(비록 체코 연구자들은 1980년 이후 더 이상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에서 유사한 생각을 가진, 주로 문학을 연구하는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번역학에서 이들은 집단적으로 ‘기술학과’, ‘체계론 학과’, ‘경험주의 학과’로 지칭되었고, 심지어, ‘말소사’, ‘조작학과’로도 일컬어졌다. (Hermans 1995: 217)

3) 투리를 비롯한 초기의 번역학자들은 실증주의적 관점을 옹호했지만 이러한 입장에 관해 번역학계에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이에 관한 논의는 Brownlie 2003a 참조).

4) 번역에 관한 투리의 인식이 늘 일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투리는 권력관계, 창의성, 이념공동체, 규범 협상, 파편화된 체계모델 등을 중심으로 번역의 문제들을 다시 고민했으며, 이로 인해 번역인식론적 입장이 달라진다(이에 관해서는 Pym 1998, Brownlie 2003a 참조).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험펠을 기반으로 정교함을 획득한 투리의 경험적 방법은, 번역학의 정체성과 번역학적 지식 획득의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투리와 다른 방식으로 험펠의 관점을 수용한 학자는 앤드류 체스터만이다. 그는 최근 번역학 연구가 문학·철학·미학 연구에서 토대가 되는 해석학적 관점, 공학·건축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응용과학적 관점, 사회학·심리학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을 끌고루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험펠의 설명이 번역학 연구를 기술하는데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한다(Chesterman 2001). 즉 험펠의 실증주의적 방법이 지니는 한계는 있지만 오늘날 번역학과 번역학적 지식 획득의 문제가 험펠의 논의를 토대로 적절하게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체스터만은 험펠이 사용한 핵심 용어들을 주목한다. “특정한(particular)”과 “일반적(general)”이라는 용어는, 번역 연구에서 다루지는 주제들과 이를 접근하는 방식이 특정적일 수도 있고 일반적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어떤 번역학자들은 특정한 번역이 가지는 특별한(unique) 성격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다른 번역학자들은 일반화, 패턴과 규칙성, 심지어 모든 번역에서 나타나는 보편소를 탐구”(2001: 10)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술”과 “설명”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번역학에서 기술과 설명은 중요한 목표인데, 설명의 경우 인문·사회과학(soft sciences)으로서의 번역학이 자연과학(hard sciences)과 구별되는 지점을 강조한다. 자연과학에서는 설명을 결정론적 인과관계로 접근하는 반면, 인문·사회과학에서는 확률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정론적 설명과 확률론적 설명은 모두 법칙적 설명(nomological explanation)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cf. Toury 1995: 264). “설명”을 “이해(understanding)”와 구별한 체스터만은, 이해는 주관적인 측면(cf. Von Wright 1971)을 가지기 때문에 칼 포퍼의 제 2세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이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공유되는 것은 제 3세계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해에 있어서도 원인 규명은 중요하지만 자연과학과 달리 현상이나 사건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⁵⁾ 아울러 체스터만은 험펠의 “가설” 개념을 주목하면서 가설은 패턴과 규칙성을 파악하게 해주는 과정이며 가설을 세우고 다양한 조건에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론이나 법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칙’이라는 용어가 “과도하게 결정론적이고, 따라서 자연과학에 더 적절한 것”(2001: 11)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가설의 수립, 수정, 검증의 문제를 ‘이해’나 ‘경험적 연구’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모든 연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질문/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경험적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은 가설 검증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예, 새로운 코퍼스, 세밀한 사례연구)의 확보와 기존 가설의 검증(또는 더욱 정교한 가설의 수립)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설의 수립(또는 새로운 가설 수립의 정당성 제시), 가설 검증(또는 수립)을 위한 새로운 방법 제안, 가설 간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설명(즉, 새로운 이론) 모색이 모두 경험적 연구의 목적이다. (Chesterman 2001: 11)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체스터만의 ‘경험적 연구’는 실증주의적 방법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험펠의 관점을 설명한 그의 글은, 오히려 경험적 연구에 관한 체스터만의 입장 표명에 더 가깝다. 가설 검증을 통한 일반적 원리의 발견,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번역현상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험펠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설을 세우고 반복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번역 이론이나 법칙을 정립하고, 정립된 이론 혹은 법칙을 통해 특정한 조건에서 어떤 번역행위가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만이 ‘과학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체스터만은 그런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여기서 험펠은 “설명”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연역-법칙 모델(deductive-nomological model)’을 중심으로 설명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이 모델은 연구대상을 연역적으로 일반법칙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Hempel 1968: 337-338). 일례로 “왜 유리탁자 위에 있는 뜨거운 커피잔은 스스로 움직이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대상은 스스로 움직이는 커피잔이고, 여기서 초기 조건, 즉 매끄러운 표면과 뜨거운 커피에 대한 상황 기술이 제공된다면, “모든 기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팽창한다”는 일반법칙에 포함시킴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채오병 2007: 253). 험펠에게는 이것이 인과적 설명이고, 여기서 설명과 예측은 동일하게 다뤄진다. 이외에도 험펠은 확률적 법칙, (귀납-)확률적 설명을 과학적 설명으로 보았다.

번역학에서 경험적 연구에 관해 가장 흥미로운 입장을 제시한 학자는 앤소니 뎀이다(Pym 2009). 그는 투리의 ‘경험적 연구’에 관한 논의가 이분법적인 접근방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도(cf. Pym 1998), 경험적 연구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 글의 목적은 번역 연구에서든 다른 분야 연구에서든 세상으로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유형의 연구를 옹호하는 것이다. 필자가 옹호하는 연구는, 다른 이의 권위적 통찰을 빌어 세상을 이해하면서 이론이 주는 확신을 재생하는 연구에 대비되는 것이며, 필자는 후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다 (중략) 그러나 현 맥락에서 필자는, 문학번역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이 벤야민, 데리다, 보르헤스 등의 지식 몇 조각을 재생하는 것을 비판하고자 한다. 물론 철학, 문학 그리고 방금 언급한 사람들에 대해 필자가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필자는 이들의 글을 읽는 것을 즐긴다). 그러나 이 정전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필자는, 러시아 형식주의가 확산되면서 유럽 전반에서 다양하게 발전한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는 학자들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 같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기에 이렇게 분류되는 것도 기쁘다. 그리고 이 분류로 인해 필자는 태연하게 무(無)이론(non-theory)을 찬양할 필요도 없고, 연구자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냥 관찰만 하면 된다고 순진하게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여기서 특정한 이론화의 장점을 찬양하려 하는데, 이는 적용의 단계에서 이론화가 완료되고, 확장되고, 문제가 제기된 것을 가리킨다. (Pym 2009)

뎀은 저명한 학자들의 이론적 명제가 경험적 방법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주장되는 연구를 “나쁜 철학(bad philosoph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비판한다(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Pym 2009 참조). 그동안 뎀은 기술 번역학과 경험적 방법에 관해 문제들을 제기해 왔고(e.g. Pym 1998, Brownlie 2003b) 번역철학자들의 “지식 몇 조각”을 비교적 자주 인용하면서 해석학적 방법을 토대로 논증하기도 했기에, 자신의 연구를 ‘경험적 연구’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뜻밖이다.

그러나 뎀이 그동안 번역학적 지식의 문제를 다뤄온 방식은 그가 위에서 설명하는 ‘경험적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경험적 증

거를 토대로 번역이론을 논했고 실제 현상과 자료에 기반을 둔 사실을 강조했다. 그가 상정한 번역은 무한히 풍부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연구의 대상이 경험 형식으로 파악되지만 경험되는 것에는 여러 층위에서 작동하는 기제들이 있음을 전제로 했다. 즉 번역행위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복잡성을 주목하면서 번역 문제의 탐구나 인과적 설명은 실체의 존재 혹은 기제의 작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펴이 번역 연구에서 경험의 일반화보다 인과관계의 해명을 중시하는 것은 그의 “다중 인과성(multiple causality)” 개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Pym 1998).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 즉 4개의 원인에 관한 논의를 번역에 적용하여 번역의 ‘질료인(material causes)’(e.g. 원천언어, 원천텍스트, 번역언어, 원천텍스트의 번역문화로의 전환), ‘목적인(final causes)’(e.g. 번역문화권에서의 위치나 기능), ‘형상인(formal causes)’(e.g. 번역 등가에 관한 이해방식), ‘작용인(efficient causes)’(e.g. 개별 번역자,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다수의 번역자)의 관점에서 설명한다.⁶⁾ 번역은 단일한 인과성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수의 근거를 토대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펴이 경험적 연구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몇 명 안 되는 청중 중 한 사람이 필자에게 방금 사용한 “경험적”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였다. 그녀는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 간의 비교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경험주의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해야 한다.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이 번역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번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번역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번역하는 뇌(바로 이곳에서 문화 간 차이가 실제로 구성되기도 한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번역의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지, 번역의 실제적 대안은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다. 경험주의는 번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또는 번역보다 더 윤리적인 소통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상상해 보는 일(그런 사례를 탐색하는 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 이론이 일종의 무이론에 의해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검증되어야 하는 것

6) 체스터만도 인과관계의 해명을 번역연구의 중요한 목표로 보면서 펴이 4개의 원인에 ‘근인(proximate cause)’(e.g. 번역자의 정신작용)과 ‘사회문화인(socio-cultural cause)’(e.g.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역사적 요인들의 영향)을 추가하여 6개의 원인을 골자로 하는 원인설을 제시한다(Chesterman 1998, 2008).

은 모두 포함된다. (Pym 2009)

핍의 논의에서 ‘경험적’이라는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감각자료를 통하여 번역의 실재를 파악한다는 경험적 인식론을 볼 수 있지만,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기제들의 조합에 따라 번역이 독특하고 특수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까지 전제로 한다(e.g. “번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상상해보는 일”). 이는 번역이 경험 형식으로 파악된다는 점을 토대로 하면서도, 번역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문제를 실제적(actual) 그리고 실재적(real) 영역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험적’과 ‘비경험적’의 정확한 경계가 없는 지점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핍의 접근방식은 절충주의로 볼 수도 있고, 후기실증주의적 관점과 해석학적 관점이 만나는 지점 또는 경험적 연구가 방법론적 실증주의에서 비판적 실재론으로 이행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가설의 수립과 검증, 연구결과의 반복 발생을 토대로 규칙성을 찾는 연구,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연구부터 지저에서 작동하는 인과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별적 번역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방식이 모두 경험적 연구 영역에서 다뤄진다는 것이다. 이는 곧 오늘날 번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번역을 복잡하고 중층적인 성격을 가진 실재하는 행위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증주의 과학관만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3. 번역학에서의 사례연구

3.1 ‘사례연구’는 무엇인가?

번역학에서 경험적 연구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사례연구는, 조사 대상이 되는 특정한 단위를 맥락 속에서 세밀하게 조사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연구자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과 맥락 간 경계를 구축한 후 “경계 지어진 시스템(bounded system)”으로서의 그 단위를 탐구하는 것이다(Stake 2008: 119-120). 분석 단위는 지리적·물리적으로 경계가 뚜렷한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 즉 무엇이 ‘분석 단위’가 되고 ‘맥락’이 되는지는 연구자가 경계를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Flyvbjerg 2011). 사례연구에서는 ‘무엇’의 문제가 가장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연구)방법 선택의 차원보다 무엇을 연구할지 결정하는”(Stake 2005: 438)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⁷⁾ 맥락 속에서 사례를 조사한다는 것은 분석 단위와 맥락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상호의존적인인 현상들이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례연구 방법은 분석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전면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다.

사례연구는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질적 방법이나 양적 방법을 토대로 수행될 수 있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두 방법을 한 연구에서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는 자연주의적, 귀납적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질적 방법과 연구에 관한 철학을 공유한다(Guba and Lincoln 1994). 사례연구는 다른 질적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에 관한 가능성을 인정하며 발생적 연구 설계(emergent research design)를 토대로 한다(Gillham 2000: 4-8).⁸⁾ 따라서 실험과 같이 연역적 방법을 토대로 하면서 맥락적 요인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연구방법, 객관주의에 관한 신념이나 사전에 확정된 연구 설계를 토대로 하는 연구방법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사례연구는 특정 단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그리고 “왜”라는 질문에 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Yin 2009). 분석 단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 사례연구에서는 사례와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정보가 연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⁹⁾ 다수의 샘플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경향이나 원리를 연구하는 것(특히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하나의 단위 또는 소

7) 이러한 입장과 달리, 사례연구를 구체적인 연구방법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서 실험, 역사연구, 서베이 등과 구별되는 방법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다(Yin 2009).

8) ‘발생적 연구 설계’는, 연구 설계를 고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 문제와 설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을 토대로 한다.

9) 많은 정보와 상세한 내용이 때로는 사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한 기술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며, 이러한 사례연구의 특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수의 단위를 심도 있게 조사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서베이, 면담, 문헌자료 수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다(Gillham 2000). 자료 분석과 논증 과정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즉 동일한 현상을 연구하는데 다양한 자료원이나 서로 다른 방법을 활용(e.g.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다면적 방법을 통해 결과를 수렴하는 것은 연구의 신뢰도와 엄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번역 사례연구에서는 ‘사례’가 번역텍스트, 번역자, 번역기관, 원천문화권/도착문화권의 문학시스템 등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오역 논란이나 어느 시기에 출판계가 특정한 장르의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번역하여 출간한 것도 사례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자는 “어떻게”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를 하는데, 가령 특정 영화가 어떻게 번역되었고 왜 그리 번역되었는지, 특정 장르가 한 도착어문화권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법정통역사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특정 텍스트의 오역 논란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례연구의 성격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sam-Sarajeva 2010; Gillham 2000; Flyvbjerg 2006, 2011; Yin 2009; Stake 2005; Gerring 2004, 2007; Van Wynsberghe and Khan 2007; 이영철 2006, 2009).

- 소수의 분석 단위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 사례연구에서는 단일한 또는 소수의 단위를 정밀하게 탐색한다. 특정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례의 속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는다.
- 맥락적 요인들의 중요성: 분석 대상인 행위 또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관련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상세한 맥락적 정보는 사건의 발생기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 자연적인 환경의 중요성: 자연 발생적인 사례를 원래의 환경에서 탐색하며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한다. 변수의 통제를 통

해 효과를 측정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직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복잡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나 사건을 연구한다.

- 경계의 구분: 분석의 단위와 관련하여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정확하게 제시한다. 시공간적 경계는 맥락에 구조를 부여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 연구 문제와 설계의 조정 가능성: 사례의 복잡성을 가장 적절하게 기술 및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문제와 설계를 중심으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연구 설계의 중요한 특징이 융통성과 조정 가능성(open-ended)이다.
- 사례 전체를 보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목: 분석의 단위 전체에 초점을 두면서도 관련 데이터는 그 어떤 것도 제외하지 않고 논의에 포함한다. 심지어 초기에 수립한 가설을 반증하는 데이터라 할지라도 연구에서 다루어야 하며, 논의가 나무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도 숲의 모습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 연구 결과는 ‘내러티브’ 또는 ‘기술(記述)’ 형식의 보고서로 작성된다. 특히 보고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둔다.

번역사례연구에서 ‘사례’는 ‘예(example)’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번역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텍스트 중심 연구의 경우 ‘예문’)는, 특정 집단을 대표하거나 집단의 전형성을 드러내는 표본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따라서 실제 세계에 뿌리를 둔 하나의 단위로서 맥락 속에서만 이해되는 ‘사례’와 달리, ‘예’는 탈맥락화된 단위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특정 언어현상(e.g. 은유, 감정어, 유머)이 번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추출한 예문은 ‘사례’로 볼 수 없다. 사례와 맥락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고, 시간, 텍스트유형 등을 중심으로 한정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경계 지어진 시스템”으로 사례를 다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⁰⁾ 수잡-사라예바는 ‘사례’와 ‘예’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10) 이런 경우 “영한번역에 대한 사례연구”, “은유에 대한 사례연구”와 같은 제목은 적

설명한다.

분석의 단위가 ‘예’가 될 때는 논문의 주장을 입증해 주는 것만 다루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연구자는 필터링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논지를 가장 적절하게 지지해 주는 예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 논지의 근거가 되는, 특정한 단위의 몇몇 데이터만이 언급될 뿐이다. 전체에 대한 초점도 없고, 다양한 자료원에서 가져온 증거를 ‘수렴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분석 단위의 맥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Susam-Sarajeva 2010: 41)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예’와 구별되지만 수잠-사라예바가 주목한 것은 ‘맥락’에 대한 이해방식이다. 여기서 맥락이란 분석 단위인 번역이 행해진 상황, 조건, 환경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언제 번역을 수행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번역이 수행되었는지, 관련 행위자들은 누구이며, 어떤 번역관이 지배적이었는지 등에 관한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cf. Geertz 1973)이 있어야 한다. 인류학자인 기어츠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된 ‘두터운 기술’ 개념은,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는 연구자가 행위만을 설명해서는 안 되며 행위의 맥락과 상징적 의미까지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외부인도 해당 행위가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링컨과 구바는 사례연구를 비롯한 모든 질적 연구가 대상에 관해 “특수하고 개별적인 지식”(Lincoln and Guba 2000: 38)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두터운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수잠-사라예바도 번역의 맥락 그리고 번역 관련 요소들의 상징적 의미가 번역사례연구에서 ‘두터운 기술’로 논의될 때 비로소 번역현상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sam-Sarajeva 2010). ‘두터운 기술’을 토대로 사례연구가 이루어질 때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밀도 높은 내러티브 형식으로 보고된다.

3.2 사례연구의 지위에 관한 쟁점

사례연구는 소수의 분석 단위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 (generalizability)과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이 낮고, 설명력과 예측 능력이 제한적

절하지 않다.

인 연구방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엄밀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부족하며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사례연구는 결국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서 가치가 높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맞서 사례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다(cf. 이영철 2006). 첫째, 사례연구의 현장 중심적, 실제적 효과를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사례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유용하고 효과적임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둘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사례연구의 탐색적인 가치를 부각시키거나, 기존 이론을 확증 또는 반증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은, ‘많은 변수, 적은 사례 수’라는 사례연구의 특징을 문제시하는 입장, 일반적인 ‘과학적’ 연구의 기준을 인정하는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점들을 남겨두고 있다.

사례연구 비판은 연구방법에 관한 오해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과학적 연구와 지식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구체적·실제적 지식(맥락 의존적 지식)이 일반적·이론적 지식(맥락과 상관없는 지식)에 비해 가치가 낮다”는 관점이다(Flyvbjerg 2006). 사례연구의 가치를 지식의 가치, 지식형성의 문제 중심으로 살펴본 플류비에어는, 사례연구로 창출되는 맥락 의존적인 지식이 규칙에 바탕을 둔 지식보다 인간과 사회를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 형성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은 규칙 중심적이지만 수준이 높은 복잡한 지식일수록 맥락 의존적이고 밀도가 높다.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을 창출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하거나 접하면서 현상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의 수준에서 심도 있는, 전문적인 이해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캠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결국 인간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식할 때 매우 능력 있는 인식자이며, 질적, 상식적인 앎(knowing)은 양적 앎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 (중략) 물론 상식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관찰이 객관성, 신뢰성, 무편향성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점이다. 비록 잡음이 있고 불완전하고 편향적이더라도 지식에 이르는 길은 이것 밖에 없다. (Campbell 1975: 179)

인식 주체가 연구대상을 세밀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대상을 불완전하고 개연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획득하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지식이다.

번역학에서 경험적 연구의 목적은 맥락으로부터 독립적인 법칙 또는 이론의 형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면적인 성질을 가진 번역을 이해하고 번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형식적 일반화(formal generalization)는 지식 형성의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특별히 더 가치 있는 방법도 아니다. 다시 말해, 번역의 일반 원리의 발견, 예측이론의 수립과 보편적인 주장의 제기도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맥락 의존적 지식이 더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다. “질적, 상식적인 앎”을 기반으로 하는 맥락 의존적 지식, 실재하는 번역의 발생기제 작용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지식이 번역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례연구가 하나의 개별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형식적 일반화와 보편적 진술을 중요시하는 실증주의적 입장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현실세계가 실재할 뿐만 아니라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객관적, 논리적, 중립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cf. Guba and Lincoln 1994)을 바탕으로 한다. 이 관점은 사례연구의 과학적 의의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가장 자주 제시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지식축적이 형식적 일반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이 형식적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식축적의 집합적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양적 방법에 기반을 둔 연구 못지않게 단일 사례 또는 소수의 사례에 관한 질적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다(Flyvbjerg 2006, Blaug 1980). 과학 발전에 있어 ‘모범적 사례’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고, 형식적 일반화나 대규모 샘플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이다. 플류비에어는 ‘모범적 사례’ 중심의 단일사례연구를 통해서도 현상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과학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형식적 일반화의 중요성을 폄하하지는 않더라도, 일반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순전히 기술적인 연구나 현상학적인 사례연구가 학술 연구의 진보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사례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될 수 없다는 점이 사례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로버트 인은 일반화 문제를 ‘통계적 일반화(statistical generalization)’와 ‘분석적 일반화(analytical generalization)’로 구분하면서 사례연구가 추구하는 일반화는 ‘분석적 일반화’라고 강조한다(Yin 2009). ‘통계적 일반화’는 사례를 표본으로 간주하면서 반복 조사를 통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모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분석적 일반화’는 사례연구를 통해 특정한 이론의 전제와 방법이 일반화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론이 특정한 사례에 적용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의 개발과 확장을 시도하는 일이다.

로버트 스테이크는 일반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Stake 2000). 그는 사례연구가 암묵적 지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자연주의적 일반화(naturalistic generalization)”(2000: 22-23)를 추구한다고 강조한다. 자연주의적 일반화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또는 맥락과 관계없이 사물이나 이슈의 유사성 파악”을 통해 또는 “사건의 공변(covariation) 지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연과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화, 즉 추상적, 법칙 중심적 일반화는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고 직접적인 체험을 방해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현상에 관한 상세한 이해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주된 관심사인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자연주의적 일반화가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사례연구가 자연주의적 일반화를 추구한다는 스테이크의 주장은 연구결과가 한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전이될 수 있는 특성, 즉 “전이성(transferability)”(Lincoln and Guba 2000: 27, 38)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Susam-Sarajeva 2010: 46-47). 링컨과 구버는 “광범위하고 심오한 일반화”와 “특수하고 세분화된 지식”의 양자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것이 연구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A맥락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B맥락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진술”(Lincoln and Guba 2000: 38-39)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연구결과가 한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전이되는 근거를 “적합성(fittingness)”으로 본 링컨과 구바는, 상이한 두 맥락, 즉 출발맥락(sending context)과 도착맥락(receiving context) 간 “합치의 정도(degree of congruence)”를 적합성의 척도로 보았다. “A맥락과 B맥락 간 충분한 합치성이 존재하면 출발맥락의 작업가설은 도착맥락에 적용 가능한 것”(2000: 40)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충분한 합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에 관한 ‘두터운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석 단위에 관한 충분한 맥락적 정보를 세밀하게 제공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 합치의 정도를 파악하고 다른 사례와 맥락으로의 전이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다. ‘자연주의적 일반화’나 ‘전이성’에 대한 논의는 결국 통계적 일반화가 인간과 사회에 관한 탐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관점을 토대로 한다. 사례연구가 ‘두터운 기술’을 중심으로 수행된다면 연구 결과는 다른 이들에 의해 전이된다는 것이다.

사례연구의 진정한 가치는 통계적 패턴의 발견이나 통계적 일반화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시각에서 본다면 사례연구의 가치는 높지 않다. 그러나 조사 대상의 복잡한 성격으로부터 비롯되는 행태적 경향성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발생기제와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그 대상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사례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즉 지식의 대상이 폐쇄체계가 아니라 개방체계라고 본다면, 따라서 발생기제의 작동이 사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면, 사례연구야말로 번역에 관한 구체적이고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방법인 것이다.

셋째, “사례연구는 전체 연구과정의 첫 단계인 가설 창출이나 탐색적(exploratory) 연구에 주로 유용하며 가설 검증과 이론 형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맞서 학자들(e.g. Eckstein 1975, George and Bennett 2005)은 사례연구의 의의를 가설 검증뿐만 아니라 이론 구축에서 찾는다. 특히 조지와 베넷은 사례연구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론 구축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George and Bennett 2005: 6-9).

- 과정 추적을 통한 원인과 결과의 연결
- 인과적 기제에 관한 구체적 탐색

- 역사적 설명과 이에 관한 검증
- 개념의 맥락적 의미에 관한 이해
- 일탈적 사례를 통한 새로운 가설의 수립과 새로운 연구문제의 제기

이런 역할을 사례연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례의 선택이 중요하다. 방법론적 실증주의 논리를 따른다면, 사례가 속한 모집단의 모습은 대표적 사례(representative case)나 무작위 표본(random sample)을 통해 가장 적절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 방법은 사례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문제의 인과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계적 표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타당성을 토대로 독특한 소수의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극단적(일탈적) 사례(extreme/deviant case)’나 ‘결정적 사례(critical case)’는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력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다(Flyvberg 2006). 이들 사례가 지닌 비전형성과 극단성은 오히려 행위자나 작동기제에 관한 새롭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cf. Ragin 1992, Rosch 1972). 로버트 인에 의하면, 극단적 사례야말로 그동안 “예외적인 것”으로만 간주되던 현상을 새로운 개념, 변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Yin 2009). 연구자의 논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존 이론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결정적 사례’는 일반적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전략적인 의의를 가진다(Yin 2009, Gillham 2000). 확립된 이론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확립된 이론을 반증하여 새로운 이론의 창출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넷째,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미리 상정한 관념을 입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확증 편향적”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훌륭한 사례연구를 수행한 많은 학자들은 연구과정에서 자신의 전제, 가설, 개념 등을 수정해야 하며(Campbell 1975, Ragin 1992, Geertz 1995, Wiewiorka 1992, Flyvbjerg 1998, 2001), 따라서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방법은 기존 관념을 입증하기 보다는 반증하는데 더 큰 효과를 지닌다.

4. 번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서 사례연구의 지위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번역학이 일반적인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학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적 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흠즈와 투리를 비롯한 초기 번역학자들에게 ‘경험적 연구’는, 지식획득의 근거를 경험에 두고 객관적 관찰을 통해 실재하는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으며, 외부세계에 대한 예측적이고 설명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지칭했다. 험펠의 논의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세계는 실재하며 파악 가능하지만, 관찰, 가설의 구축, 가설의 반복 검증 등을 통해서 앞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경험적 연구는 사실 실증주의적 연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번역학에서 ‘경험적’이라는 용어는 실증주의적 과학관 그리고 이로 인한 실재론적 존재론과 객관주의적 인식론(cf. Guba and Lincoln 1994)을 토대로 이해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체스터만을 지나 펴를 비롯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새로운 세대의 번역학자들은, 번역현상의 복잡다단함에 주목하면서 번역을 깊은 수준에서 많은 기제들이 작용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번역학에서 경험적 연구는 변수들 간의 관계 규명을 통한 경험적 규칙성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실재하는 번역현상의 기저에 존재하는 인과기제의 복합적인 작용까지 파악하는 연구로 접근되고 있다. 가설을 다양한 조건 하에서 반복적으로 검증하거나 법칙 정립을 시도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이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탐구에 이르기까지 번역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든 경험적 연구 영역에서 모색되고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번역 연구 문제들은 실로 다양하다. 일례로 “특정한 작품이 특정한 방식으로 번역된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르 또는 작가의 작품이 집중적으로 번역된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문화권에서 좋은 번역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특정한 번역오류 사건의 원인은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개별적인 항목 또는 특정한 사례(또는 소수의 사례) 중심의 연구가 제한적인 ‘과학적’ 가치를 가지지만, 소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맥락과의 깊은 관련성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추적해보는 연구는 번역의 풍부하고 복합적인 기제들 또는 기저에 있는 발생구조를 심도 있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사례연구의 가치와 역할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사례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었다는 조건이 성립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번역사례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¹¹⁾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의 선택 문제인데, 이때 고려할 기준은 연구 문제(research question)이다. 사례연구는 문제에 입각한(problem-driven) 연구이며, 여기서 문제는 이론과 복합적인 관계를 갖는다. 번역과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는 데는 주로 이론이 필요하고 이론은 사례(쟁점)의 분석을 통해서 더욱 정교해진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정된 이론은 쟁점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서 이론과 사례 중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다. 핼이 주장하듯이 이 질문은 연구과정을 통해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Pym 2009). 말리노프스키가 강조한 바와 같이 연구과정은 미리 설정한 관념이 아닌 “현상의 전조가 되는 많은 문제(foreshadowed problems)”에서 시작되어야 한다(Malinowski 1922: 9). 미리 상정한 관념에서 출발할 경우 기존의 관념을 확인하는 사례연구가 될 뿐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는 사례연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연구 방법을 토대로 확립된 이론을 입증하거나 반증하고자 한다면, 플류비에어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결정적 사례’의 선택이 바람직하다(Flyvberg 2006). ‘결정적 사례’는 특정한 유형의 논리적, 연역적 추론을 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사례로서 “가장 그럴듯한(most likely)” 경우와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most unlikely)” 사례들이 해당된다. “가장 그럴듯한” 사례는 기존의 이론을 반증할 때,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 사례는 이론을 입증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례로 핼은 결정적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자가 속한 문화가 원천문화도 번역문화도 아닌, ‘간 문화(interculture)’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통해 번역학 이론들의 핵심 개념인 ‘원천문화’와 ‘번역문화’ 그리고 소통의 방향성(번역문화로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한다. 이와 같이 ‘결정적 사례’는 기존 이론을 반증하거나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다.

11) 방법론은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처방이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번역사례연구는 번역의 일반적인 성격을 기술하고 설명할 때보다 여러 층위에서 인과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번역현상을 설명할 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위한 사례를 선택할 때는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 대표성을 가진 표본(통계적 표본)보다는 연구 문제에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되 다른 사례들과의 공통점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Stake 2005: 238). 사례의 특수성은 사례의 성격, 역사적 배경, 물리적 환경, 경제적·정치적·법적 맥락, 다른 유사한 사례들과의 관계, 사례의 속성을 알려주는 정보제공자 등에서 드러난다.

사례의 선택 이외에도 좋은 번역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번역 맥락에 관한 ‘두터운 기술’이 중요하다. 사례는 중층적인 맥락에 감싸여 있는 복잡한 실체이며 따라서 맥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사례연구의 핵심이 된다. 특히 맥락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번역 연구는 ‘오류’에 관한 사례분석이다. 강지혜(2012b)에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번역학연구』에 게재된 사례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례연구 대비 오류분석의 비율이 32.6%로 높게 나타났다. 오류분석 논문에서 오류에 대한 주장은 주로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번역 맥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텍스트 해석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거나 투명하지 않으며, 특정 의미를 새로운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문제는 더욱 여러 맥락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역에 대한 기술과 설명은 번역 맥락에 관한 ‘두터운 기술’을 수반해야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즉 번역자가 누구인지, 언제 번역되었는지, 지배적인 번역규범은 무엇이었는지, 번역의 조건은 어떠한지 등의 맥락적 정보가 다뤄질 때 번역오류를 정밀하고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 맥락에 관한 기술 부재는 결국 의미의 불일치에 관한 인과관계 탐구를 어렵게 만들고, “비(非)이 불법적 오류”(Pym 1992: 2)의 탐색 가능성을 소멸시킨다.

사례연구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결국 번역 연구를 ‘경험적 연구’와 ‘개념적 연구’로 구분한 윌리엄즈와 체스터만의 구분법이 실제 연구 수행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한 검토를 요구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술적 연구는 개념적 논의를 생략한 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사례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윌리엄즈와 체스터만도 “각 연구방법을 옹호하는 학자들에 의해 두 연

구방법의 차이가 과장되었을 수 있음”(Williams and Chesterman 2002: 58)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연구를 수행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뭔가를 관찰할 때 이론(개념)과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심지어 사실이나 데이터로 간주되는 것조차도 우선 연관성 있는 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초기의 이론적 전제”(2002: 58)를 토대로 한다고 말한다. 즉 경험적 연구와 개념적 연구를 구분하는 것은 인식론적, 방법론적으로 설득력이 있지만, 윌리엄즈와 체스터만의 구분법은 엄격한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지의 문제, 즉 초점의 문제라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가 개념적 논의의 배제를 의미하지 않듯이, 사례연구에서도 핵심 개념들에 대한 개념 정립과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¹²⁾ 사례연구에서 개념적 논의는 특히 기존 문헌 분석, 연구의 학술적 의의 논의, 경험적 데이터의 분석 도구로서 특정 개념 설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4. 결론

번역에 대한 논의에서 간혹 ‘과학관’이 ‘실증주의적 과학관’과, ‘경험적 방법’이 ‘실증주의적 방법’과 동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도 과거에 이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험적 연구가 ‘가설의 검증과 반증을 토대로 일반화를 추구하는 연구’, ‘법칙 정립과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번역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구도 훌륭한 경험적 연구이다. 실험, 사례연구, 서베이, 심층면접, 민속지학적 연구 등 다양한 경험적 연구방법 중 구체적인 방법 선택의 문제는 결국 연구 주제 및 문제, 연구 설계, 연구자의 교육 배경과 연구철학 등이 결정한다.

경험적 연구의 수행이 반드시 경험적 데이터의 단순 축적을 의미하거나, 학문적 자기반성을 생략한 채 분석대상에 관한 미시적 분석만을 수행하는 것을

12) 일반적으로 사례연구는 ‘경험적 연구’로 분류되기보다는 ‘질적 연구’로 구분되는 경향(Guba and Lincoln 1994; Gillham 2000; Flyvbjerg 2006, 2011; Stake 2005)이 더 크다.

뜻하지 않는다. 체스터만이 지적한 바 있는 번역 연구의 문제점인 “지엽적 연구 문제들의 선택, 문제(의식)의 부재, 연관성 없는 논의”(Chesterman 2011: 16)는 경험적 연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구에 해당한다. 결국 연구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번역 연구는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제시하고 번역학적 지식 축적에 유의미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곧 자신의 연구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지, 기존의 관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립된 개념·이론·이해방식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례연구에 관한 기존의 비판이 주로 부실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부실한 사례연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단일사례연구의 결과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통계적 일반화를 할 수 없음이 마치 대단한 잘못된 것처럼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례연구가 통계적 표본 중심의 연구와는 다른 철학적 근거와 연구 논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방법이 요구하는 대로, 연구방법의 장점과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된다. 즉 단일사례연구의 존재론적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적 성찰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국내 번역사례들의 발굴과 분석은 번역학의 학문적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번역학이 유럽 중심적인 학문으로 발전한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특히 유럽의 다양한 번역사례들에 관한 경험적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토대로 번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cf. 강지혜 2012a). 국내 번역학의 경우에도 많은 경험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번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맥락화된 이해가 있어야 번역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역사 속에서 다양한 번역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일은 번역의 복잡한 세계를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번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번역을 수행하는지, 번역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으로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번역을 이론적·실제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논의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번역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2a) 「번역에 대한 제도적 관점의 중요성 고찰: ‘제도번역’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7-32.
- 강지혜 (2012b) 「번역학에서의 사례연구에 대한 고찰」, 『2012년 한국번역학회 가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26.
- 윤성우 · 이향 (2011) 「번역인식론적 접근: 프랑스 번역철학자 라드미랄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99-118.
- 이영훈 (2013) 「한국 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전제와 시론」, 『2013년 한국번역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26-244.
- 이영철 (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국행정학보』 40(1): 71-90.
- 이영철 (2009) 「보다 나은 사례연구: 논리와 예시」, 『정부학연구』 15(1): 189-213.
- 이향 (2011) 「번역학과 메타담론」, 『번역학연구』 12(1): 191-210.
- 채오병 (2007) 「실증주의에서 실재론으로: 역사연구 논리의 전환」, 『한국사회학』 41(5): 249-283.
- Achen, Christopher and Duncan Snidal (1989) ‘Rational Deterrence Theory and Comparative Case Studies’, *World Politics* 41(2): 143-169.
- Blaug Mark (1980)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Or How Economists Expl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lie, Siobhan (2003a) ‘Distinguishing Some Approaches to Translation Research: The Issue of Interpretative Constraints’, *The Translator* 9(1): 39-64.
- Brownlie, Siobhan (2003b) ‘Investigating Explanations of Translational Phenomena: A Case for Multiple Causality’, *Target* 15(1): 111-152.
- Campbell, Donald T. (1975) ‘Degrees of Freedom and the Case Stud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8(1): 178-191.
- Chesterman, Andrew (2001) ‘Empirical Research Methods in Translation Studies’, *Erikoiskielet ja käännteoria* (VAKKI- symposiumi XX) 27: 9-22.

- Chesterman, Andrew (2008) 'On Explanation', in Anthony Pym, Miriam Shlesinger and Daniel Simeoni (Eds),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63-379.
- Creswell, John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Eckstein, Harry (1975)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in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7*, Reading, MA: Addison-Wesley, 79-137.
- Flyvbjerg, Bent (1998) *Rationality and Power: Democracy in Pract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lyvbjerg, Bent (2001) *Making Social Science Matter: Why Social Inquiry Fails and How It Can Succeed Agai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yvbjerg, Bent (2006) 'Five Misunderstandings About Case-Study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2(2): 219-245.
- Flyvbjerg, Bent (2011) 'Case Study', in Norman K. Denzin and Yvonna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301-316.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 Geertz, Clifford (1995) *After the Fact: Two Countries, Four Decades, One Anthropologi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eorge, Alexander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A: MIT Press.
- Gerring, John (2004) 'What Is a Case Study and What Is It Good F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2): 341-354.
- Gerring, John (2007) *Case Study Research: Principles and Practi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ddens, Anthony (Ed.) (1975) *Positivism and Sociology*, London: Heinemann.
- Gillham, Bill (2000) *A Case Study Research Methods*,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 Gouldner, Alvin (1970)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London: Heinemann.
- Guba, Egon G. and Yvonna S. Lincoln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orman K. Denzin and Yvonna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105-117.
- Hempel, Carl G. (1952) *Fundamentals of Concept Form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mpel, Carl G. (1968) 'The Logic of Functional Analysis', in May Brodbeck (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s*, New York, NY: Macmillan, 179-210.
- Hermans, Theo (1995) 'Revisiting the Classics: Toury's Empiricism Version One', *The Translator* 1(2): 215-223.
- Hermans, Theo (1999) *Translation in Systems. Descriptive and System-Oriented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Hermans, Theo (2001) 'Preface', in Theo Hermans (Ed.),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I. Historical and Ideological Issu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8.
- Holmes, James S. (1972/1988)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James S. Holmes,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67 - 80.
- King, Gary,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ebertson, Stanley (1994) 'More on the Uneasy Case for Using Mill-Type Methods in Small-N Comparative Studies', *Social Forces* 72: 1225 - 37.
- Lincoln, Yvonna and Egon Guba (2000) 'The Only Generalization Is: There Is No Generalization', in Roger Gomm, Martyn Hammersley and Peter Foster (Eds), *Case Study Method*, London: Sage, 27-44.

- Malinowski, Bronislaw (1922)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An Account of Native Enterprise and Adventure in the Archipelagoes of Melanesian New Guinea*,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Neubert, Albrecht (2004) 'Case Studies in Translation: The Study Of Translation Case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5(1): 5-23.
- Neunzig, Wilhelm (2011) 'Empirical Studies in Translation: Methodological and Epistemological Questions', *TTR*: 24(2); 15-39.
-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198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ym, Anthony (1992) 'Translation Error Analysis and the Interface with Language Teaching', in Cay Dollerup and Anne Loddegaard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raining, Talent and Experience*,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79-290.
- Pym, Anthony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Pym, Anthony (2009) 'On Empiricism and Bad Philosophy in Translation Studies', Visited 15 June 2011, <www.tinet.cat/~apym/on-line/research_methods/2009_lille.pdf>.
- Ragin, Charles (1992) "'Casing" and the Process of Social Inquiry', in Charles Ragin and Howard Becker (Eds.), *What is a Case? Exploring the Foundations of Social Inqui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7-226.
- Rosch, Eleanor (1978)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in Eleanor Rosch and Barbara B. Lloyd (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27-48.
- Stake, Robert E. (1994) 'Case Studies', in Norman K. Denzin and Yvonna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236-247.
- Stake, Robert E. (2000) 'The Case Study Method in Social Inquiry', in Roger Gomm, Martyn Hammersley and Peter Foster (Eds), *Case Study Method*, London: Sage, 19 - 26.

- Stake, Robert E. (2008) 'Qualitative Case Studies', in Norman K. Denzin and Yvonna S. Lincoln (Eds.), *Strategies of Qualitative Inquiry*, Los Angeles: Sage, 119-149.
- Susam-Sarajeva, Sebnem (2001) 'Is One Case Always Enough?',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9(3): 167-176.
- Susam-Sarajeva, Sebnem (2010) 'The Case Study Research Method in Translation Studie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ITT)* 3(1): 37-56.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Toury, Gideon (1998) 'A Handful of Paragraphs on "Translation" and "Norms"', *Current Issues in Language and Society* 5(1): 10-32.
- Van Wynsberghe, Rob and Samia Khan (2007) 'Redefining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6(2): 1-10.
- Von Wright, Georg H. (1971)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ieviorka, Michel (1992) 'Case Studies: History or Sociology?', in Charles Ragin and Howard Becker (Eds.), *What is a Case? Exploring the Foundations of Social Inqui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9-172.
- Williams, Jenny and Andrew Chesterman (2002)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Yin, Robert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Abstract]

On Empirical Research and the Case Study Method in Translation Studies

Kang, Ji-Hae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study method in translation studies in terms of the ways in which the method may be used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inner workings of translation. Although case studies of translations and translators, as well as source texts and translation events, are fairly prevalent in translation studies, this method remains an under-researched topic within the discipline. Case studies are often praised for their ability to provide detailed and in-depth knowledge of cases but criticised for their inability to generalize research findings.

This paper starts out by exploring the concept of “empirical” in the context of translation research and the status and role of the case studies method as a subtype of empirical research method (cf. Williams and Chesterman 2002). Although “empiricism” in translation studies has often been approached narrowly in positivist terms, researchers are increasingly taking diverse opinions regarding the nature of empirical data and method.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study argues that the value of the case study method lies in tracking complex processes and linking complicated causes and outcomes. Case studies plays a key role in providing a detailed understanding of causal mechanisms in translation events and showing the complicated ways in which translation-related concepts and theories are sensitive to contexts.

▶ Key Words: research methodology, case study, empirical research, generalization,
qualitative method

강지혜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jihaekang@ajou.ac.kr

관심분야: 제도번역, 미디어번역

논문투고일: 2013년 5월 8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6일